

## DISCRIMINATION

ISSUE PAPER

TALK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 차별과 질병 부르는 '업무상 하이힐'

### ● 승무노동자와 하이힐

지난 3월 7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 난데없이 하이힐이 등장했다. 뾰족한 굽부터 통굽까지 다양한 모양의 하이힐 4켤레 모두 누군가 신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원래 뾰족한 앞코를 따라 유려한 곡선을 그렸을 하이힐의 옆선은 두툼하고 투박하게 벌어져 신발 주인의 발 모양처럼 변형돼 있었다. 분명 그는 하이힐보다 큰 발볼과 발등을 육여넣어 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이힐은 뒤축에 굽을 달아서 발등이 정면으로 드러나게 신는다. 까치발 상태로 고정하기 때문에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체중은 더 앞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을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은 신체 몸무게의 7배에 달한다고 하니, 하이힐 속 발가락과 발등의 뼈들이 견뎌줄 무게가 상상 이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의 하이힐은 여성 승무원들의 유니폼 중 하나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객실 승무원과 여객지원 노동자는 복무규정에 따라 일할 때 구두를 신어야 한다. 특히 여성 승무노동자는 출퇴근할 때나 비행 시 굽이 3·5·7cm인 구두를 신어야 한다. 제주항공·진에어 같은 저비용항공사(LCC)에서는 사라진 구두 의무 착용 규정이 대형 항공사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놀랍다.

업무상 이유로 신는 하이힐은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 2018년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백화점·면세점에서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서서 일하는 화장품 판매노동자 2,806명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지외반증 발병률은 일반인(20~49세 여성 평균,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기준)보다 67배 높았다. 족저근막염도 15.8배 높았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와 변형되는 질병이고,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중앙을 평평하게 받치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모두 발 부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이다. 당시 판매직 노동자들의 7.9%는 족저근막염, 6.7%는 무지외반증으로 최근 1년 사이 병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 ● 승무노동자들의 직업병

승무노동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구두를 신으면 발이 비틀어지고 피로도가 가중돼 승무원들은 무지외반증·척추 뒤틀림·발 형태 변형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편선화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여성부장은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면 하루 평균 1만 5천 보 이상을 걷는데 딱딱한 구두를 신으니 족저근막염·무지외반증·관절염 같은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구두 대신 운동화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이 신는 구두

구두를 신으면 발이  
비틀어지고 피로도가  
가중돼 승무원들은  
무지외반증·척추 뒤틀림·  
발 형태 변형을 얻게 된다.

지난 2019년 일본에서도 미투(#Metoo) 대신 구투(#KuToo) 캠페인이 전개된 바 있다. 여기서 ‘Ku’는 일본어로 구두를 뜻하는 ‘쿠쯔(靴)’와 고통을 의미하는 ‘쿠쯔(苦痛)’를 동시에 의미한다.

캠페인을 제안한 일본 배우 이시카와 유미는 하이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성별에 따라 복장을 강제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기획팀이 지은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라는 책은 유니폼에 대해 “시선의 권력과 얽혀 있다”고 했다. “누구에게 어떤 유니폼이 요구되는지를 보면, 성별과 계급에 따라 작동하는 차별이 보인다”는 말이다. 승무원의 하이힐은 승무원을 직원이 아닌 ‘여직원’으로 보이도록 한다.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보다 노동을 성별화하고 상품화하는 방식이다.

일할 때 입는 유니폼은 직업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착용하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도 담보해야 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서 새 유니폼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해시태그가 이 세계의 사회연결망(SNS)을 넘어 현실 세계의 작업장에 닿기를 바란다. 🍀